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자기통제력의 차이*

이상희** 신명숙***

요 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의 각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첫째,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설득형의 통제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를 가진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 및 유치원 적응능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력단언형의 통제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를 가진 유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설득형이나 애정철회형인 어머니를 가진 유아가 권력단언형의 통제유형을 지닌 어머니를 가진 유아보다 통제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사회적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기통제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 및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형성 능력은 통제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유아가 통제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으며, 유아의 충동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어머니의 통제유형, 친사회적 행동, 자기통제력

논문제출일 : 2009. 10. 27

최종수정일 : 2009. 12. 18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Sangmyung University

*** The Heart Psychological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Lee, Sang-Hee, The Graduate School of Welfare Counseling, Sangmyung University, 7, Hongji-dong, Jongno-gu, Seoul, Korea, 110-743, E-mail : childlove28@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출생과 더불어 최초로 가정이라는 사회적 환경을 접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해 나가게 된다. 가족구성원과의 인간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가족문화 속에서 규범과 가치, 태도 등을 내면화하게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적 행동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확인하게 한다. 울기만 하면 달려오는 부모에게 반갑고도 만족한 웃음으로 답하는 신생아나, 외출준비를 하는 어머니보다 한 발 앞서 대문으로 내닫는 걸음마기 아기의 행동, 반갑게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유아들의 행동에서 인간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행동은 유아가 출생한 후 서서히 획득되어지는 능력이며, 가정요인 즉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갖고 대하는지에 따라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은 달라진다고 하였다(Lamb, 1988).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자라면서 습득해야 할 지식, 도덕관, 행동기준 등에 대한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변화시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 통제의 유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유형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며, 스스로가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신념과 기대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제유형은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르게 형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아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들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1970년대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유아교육계에는 지적발달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획일적인 교수방식과 자기중심의 교육만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가치관과 맞물려 유아교육의 기본개념을 왜곡시킴으로서 유아교육을 특기교육, 지능교육, 조기교육과 동일시하게 하였다(기보영, 2000). 그 결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회가 확대되어 지적으로 우수한 유아들이 많아졌으나, 기본생활습관이 안되어 있거나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유아가 많아져 사회 교육 및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였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과열된 조기교육으로 인해 지난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일찍부터 인지적으로만 과다하게 노출된 결과 사회성 발달이 미숙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집단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거나 위축되는 등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극단적인 현상은 왕따와 같은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게 되었다(동아닷컴, 2003, 3.11일자).

이와 같이 오늘날의 현대산업사회에서 유아들은 예전보다 더욱 영리하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며 경쟁적인 성향을 배우게 되어, 타인을 배려하거나 협동할 줄 모르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유아가 많아졌다(김정신, 1999; 김순애, 2000; 최숙경, 2004).

유아기는 인성과 기본 생활 태도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부모들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요구되는 가치관, 규범, 사회적 역할 및 행동 양식등을 습득하게 하여 그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사회화의 목표를 가지고 유아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변화시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도록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통제를 하게 된다. 이 때에 어머니의 통제유형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 중에서도 최근에는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보다는 긍정적 측면 즉,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Hoing, 1994).

사회적 행동에 대한 교육은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면서 후천적으로 습득되며, 특히 사회성 단위의 가장 기초인 가정의 부모는 유아들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자 교사이다. 즉 부모를 보고 동일시하거나 부모가 가르치거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고 있다는 것이다(최숙경, 2004). 이는 사회적 행위를 직접 가르치기보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이의 이해와 판단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어머니의 통제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증진은 유아의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통제 방법은 유아의 친사회적인 행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어린 유아들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욕구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장기의 유아들로 하여금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갖게 함은 유아가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남, 2000).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자기통제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유아들은 행동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최근 문제가 되는 왕따의 문제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 유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어머니의 의해 통제를 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게 된다(곽혜경, 1998). 그러므로 어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는가에 따라 유아의 자기통제력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처하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인 행동과 자기통제력은 각 하위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친사회적인 행동과 자기통제력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기는 인성과 기본 생활 태도의 기초가 형성되며, 친사회적인 행동과 자기통제력 등 사회적 행동이 발달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므로, 이 연구를 통하여 유아들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통제유형을 제시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기통제력은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5개 유치원에서 4,5,6세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15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통제유형 검사와 유아의 자기통제력은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71부가 회수되어 약 8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중복응답과 문항을 누락한 질문지 12부를 제외하고, 159부를 자료처리를 위한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검사는 유치원에서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 159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159)

배경요인	구분	빈도수(명)	비율(%)
유아의 연령	4세	25	15.7
	5세	53	33.3
	6세	81	51.0
	전체	159	100.0
유아의 성별	남아	79	49.7
	여아	80	50.3
	전체	159	100.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총인원은 159명(100.0%)으로 아동의 연령별로 4세 25명(15.7%), 5세 53명(33.3%), 6세 81명(51.0%)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아가 79명(49.7%), 여아가 80명(50.3%)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통제유형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통제유형 검사지는 임춘금(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모두 30문항이며, 통제유형은 Hoffman과 Saltzstein(1967)의 통제유형 이론을 중심으로 권력 단언형(벌, 야단), 애정 철회형(무시), 설득형(설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7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통제유형 검사에 제시된 통제유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유아 편으로 질문지를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분석방법은 총 30문항에 대해 응답한 통제유형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빈도를 내고 최빈치를 가진 통제유형을 그 어머니의 통제유형으로 정하였다.

<표 2> 어머니 통제유형 검사에 제시된 통제유형

어머니의 통제유형	각 통제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행동	대표용어	Cronbach α
권력 단언형	자녀에게 벌을 주거나 큰소리로 야단을 친다.	벌, 야단	.79
애정 철회형	자녀가 뉘우칠 때까지 의도적으로 말을 걸지 않거나,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또는 생각하면서 깨닫도록 빈 방에 혼자 있게 하거나,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잠시동안 못하게 한다.	무시	
설득형	그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이해시킨다.	설득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측정도구로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Skill Situations Measure'를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가 수정·번안하여 제작한 '친사회적 행동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 대인관계 조절능력, 유치원 적응능력의 3개 하위요인별로 각각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반응의 예는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성 신뢰도의 한 종류인 Cronbach를 산출하였을 때,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유아의 문항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검사자가 되어 독립된 방에서 개인면접 방법으로 검사를 하였다. 검사는 주로 오전 자유선택 활동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검사자는 유아와 간단하게 rapport를 형성한 후 그림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하였다. 유아의 대답은 시간제한 없이 유아의 반응을 검사자가 그대로 받아 적고, 검사가 끝난 후 내용을 분석하여 채점하였다. 채점방법은 친사회적 반응에만 1점을 주고 공격적 반응과 무관한 반응, 그리고 무반응에는 0점을 주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친사회적 행동 점수로 하위요인별 소점수는 각각 0~5점까지이며, 총점수는 0~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이며, 가장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의 총점은 15점이다.

〈표 3〉 친사회적 행동검사의 요인 및 구성내용과 예

하위 요인	구 성 내 용	친사회적 사고 반응범주의 예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구로부터 소외당할 때 ·무조건 화가 날 때 ·친구가 놀릴 때 ·친구가 공평하지 못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한 후 벌을 받을 때	·나도 같이 놀자/나도 친구잖아, 같이 놀자 ·꼭 참는다/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친구야, 놀리지마 / 그런 말 쓰면 안돼 ·이건 같이 쓰는 거니깐 가운데 놓고 쓰자 ·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대인관계 형성능력	·친구들 놀이에 새로 참여하기 ·자기차례를 기다리기 ·친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친구와 놀이감을 나누어 가지고 놀기 ·친구 도와주기	·애들아 나도 같이 놀자/나 좀 끼워줘 ·쉬고 있는다/기다린다/이기라고 응원한다 ·위로해 준다 / 왜 슬프니?하고 물어본다 ·사이좋게 같이 나누어서 논다/나도 시켜줘 ·문을 열어준다/친구의 짐을 조금 들어준다
유치원 적응능력	·생각이나 느낌을 용기 있게 말하기 ·양해를 구하기 ·지시에 따르기 ·힘들어도 열심히 하기 ·상황에 알맞게 부탁하기	·내 장난감 돌려줘/같이 가지고 놀자 ·앞사람에게 조금 비켜 달라고 한다 ·조용히 앉는다/장난감을 치우고 앉는다 ·힘들어도 해본다/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한다 ·책을 다 읽은 후 선생님께 물어본다

3)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하기 위한 검사지는 Kendall & Wilcox(1979)가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통제력 평정표로 이 검사는 담임교사나 부모 등 가장 가까이에서 그 유아를 관찰하고 있는 어른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어머니의 통제유형 질문지와 함께 유아편으로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이 평가도구의 특징은 자기통제에 대한 인지와 행동을 개념화시킨 것이라는 점인데, 이 평가도구에서 자기통제를 할 줄 아는 유아란 인지적 능력 즉, 여러 선택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과 행동능력 즉,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지닌 유아를 말한다. 유아의 전체적인 자기통제력을 검사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총 33개 문항

으로 19개는 통제성을 기술한 것이며, 14개는 충동성을 기술한 것이다. 유아의 자기통제력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자기통제력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영역	문항	Cronbach α
자기 통제력	통제성	1,3,4,5,6,7,8,9,11,12,13,14, 19,23,24,26,27,31,32	.81
	충동성	2,10,15,16,17,18,20,21,22, 25,28,29,30,33	.83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각 문항은 1점~6점으로 측정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6점, 그런 편이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시 통제성에 해당하는 문항(1,3,4,5,6,7,8,9,11,12,13,14,19,23,24,26,27,31,32)은 위와 같이 채점을 하고, 충동성에 해당하는 문항(2,10,15,16,17,18,20,21,22,25,28,29,30,33)은 점수를 역으로 채점하였으며, 문항의 총점으로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적이고, 충동성 점수가 높을수록 덜 충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질문지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질문지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좀 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도구의 면접질문 타당성, 유아의 반응의 예, 면접에 필요한 소요시간, 면접방법, 장소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8월 8일 ~12일에 4,5,6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각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05년 8월 22일~9월 9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5곳의 기관장 허락을 얻은 후 연구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어머니용 질문지를 전달하고 8월22일~29일까지 유치원 교사가 유아를 통해 배부,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200부 중 171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적당하지 않은 12부를 제외하고 159부에 한하여 친사회적 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친사회적 행동검사는 2005년 8월 29일~9월 9일까지 연구자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12.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통제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친사회적행동과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통제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유형의 검사질문지를 분석한 결과 권력단언형은 29명(18.6%), 애정철회형은 15명(9.6%), 설득형은 115명(71.8%)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친사회적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의 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어머니의 통제유형	개인정서 조절능력 M(SD)/Duncan	대인관계 형성능력 M(SD)/Duncan	유치원 적응능력 M(SD)/Duncan	전체 친사회적 행동 M(SD)/Duncan
권력단언형 (n=29)	2.69(.85) b	3.76(.78) b	3.14(1.09) b	9.59(1.43) b
애정철회형 (n=15)	3.07(.80) ab	3.07(.70) c	2.73(.70) ab	8.87(1.64) b
설득형 (n=115)	3.47(1.00) a	4.28(.75) a	3.40(1.04) a	11.1(1.79) a
F	8.11***	20.03**	3.23*	18.51***

*p<.05 **p<.01 ***p<.001

<표 5>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 조절능력(F=8.11, p<.001)과 대인관계 형성능력(F=20.03, p<.01) 그리고 유치원 적응

능력($F=3.23$,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친사회적 행동($F=18.51$, $p<.001$)의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설득형이 권력단언형과 애정철회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설득형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력단언형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설득형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애정철회형과 권력단언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적응능력의 경우에도 설득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력단언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설득형의 통제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를 가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 및 유치원 적응능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력단언형의 통제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를 가진 유아의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차이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의 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력

어머니의 통제유형 \ 유아의 자기통제력	통제성 M(SD)/Duncan	충동성 M(SD)/Duncan	전체 자기통제력 M(SD)/Duncan
권력단언형 (n=29)	70.80 (10.50) b	54.52(8.57) b	125.31(16.30) b
애정철회형 (n=15)	76.47 (6.27) a	60.20(7.40) a	136.67(9.96) a
설 득 형 (n=115)	78.24 (10.43) a	60.07(7.50) a	135.74(16.05) a
F	6.23**	6.18**	8.30***

** $p<.01$ *** $p<.001$

<표 6>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전체 자기통제력($F=8.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그 하위요인인 통제성($F=6.23$, $p<.01$)과 충동성($F=6.18$, $p<.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전체 자기통제력 점수는 애정철회형과 설득형의 어머니를 가진 유아의 권력단언형의 어머니를 가진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통제성과 충동성 점수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설득형과 애정철회형일 때 권력단언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설득형이나 애정철회형인 어머니를 가진 유아의 권력단언형의 통제유형을 지

닌 어머니를 가진 유아보다 통제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의 관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변인들과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유아의 친사회적행동과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

	개인정서 조절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유 치 원 적응능력	통 제 성	충 동 성
1. 개인정서 조절능력	-				
2. 대인관계 형성능력	.19*	-			
3. 유 치 원 적응능력	.12	.15	-		
4. 통 제 성	.23**	.19*	.14	-	
5. 충 동 성	.38***	.11	.05	.51***	-
평균	3.29	4.06	3.28	76.68	59.05
표준편차	1.03	.84	1.04	10.47	7.95

*p<.05 **p<.01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사회적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기통제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r=.23$, $p<.01$) 및 충동성($r=.38$, $p<.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통제성($r=.19$,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가 통제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으며, 유아의 충동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통제

유형이 설득형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 조절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및 유치원 적응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권력단언형 일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벌이나 야단, 자녀에게 잠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빈방에 혼자 두어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보다 그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어머니가 설명을 해 주는 설득방법의 통제유형을 사용했을 때 유아들의 사회성인 친사회적인 행동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설득방식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김경희(2000)의 연구와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자기지향귀납일 때만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최숙경(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애정·자율적일 때 친사회적 행동이 높으며 어머니가 거부·통제적일 때 친사회적 행동이 낮게 나왔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통제유형인 권력 단언형, 애정 철회형, 설득형 모두 영향을 미치나, 그 중 어머니가 유아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추론해 주고 그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는 설득형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여 줄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기통제력이 달라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설득형이나 애정철회형인 어머니를 가진 유아가 권력단언형의 통제유형을 지닌 어머니를 가진 유아보다 통제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변인인 합리적 지도, 제한성, 애정성, 반응성의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유아의 통제성이 높으며,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변인의 점수가 낮은 집단일수록 유아의 충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정숙(2004)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만족지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미라, 1999; 이경님,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자녀를 통제할 때 추론 부분을 사용할수록 아동은 욕구충족 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인 반면, 신체적 처벌과 같은 통제방법을 사용할수록 아동은 욕구충족 지연행동을 적게 나타났다는 결과(이기영, 2001)와도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권력 단언형, 애정 철회형, 설득형 모두 영향을 미치나, 그 중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벌이나 야단을 칠 경우보다 유아의 행동에 대해 설득을 하거나 유아의 행동에 잠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빈방에 혼자 두어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인 통제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애정 철회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자녀가 뉘우칠 때까지 의도적으로 말을 걸지 않거나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 또는 생각하면서 깨닫도록 빈 방에 혼자 있게 하거나,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잠시 동안 못하게 하는 등 애정 철회형의 통제유형을 행동수정 기법 중 하나인 타임아웃의 개념으로 어머니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타임아웃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켰다는 박영아(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권력 단언형, 애정 철회형, 설득형 모두 영향을 미치나, 그 중 설득형과 애정 철회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친사회적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기통제성의 하위요인의 통제성 및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통제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가 통제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으며, 유아의 충동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통제가 낮은 유아들은 충동적이고 과다행동을 보이며 정서적으로도 흥분을 잘하는 특징을 보이며,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공감하는 데 실패하거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할 수 없다고(강기숙, 2001)한 것처럼, 통제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은 유아일 수록 친사회적행동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내외통제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최경순·정현희(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는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성이 높으면 자기조절력이 높아 충동성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지역 유치원 4,5,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령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체계적인 표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유아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질문지로 어머니 자신이 생각하는 통제유형으로만 측정하였으나, 친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자녀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통제방식은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과 적응, 사회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통제력에 어머니의 통제방식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들에 대한 보완연구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적응 및 사회성과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기숙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인지양식 및 자기통제행동 발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혜경 (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 책략과 유아의 자기 통제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기보영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0).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애 (2000).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신 (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아 (1996). 타임아웃이 주의력결함 과잉행동아동의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이미라 (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 이기영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력 관계. **아동교육학회**, 10(2), 185-196.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2).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 육영회 학술 보고서**, 4집, 70-95.
- 이정숙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능력 및 자기통제력.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춘금 (1995). 부모의 통제유형 및 부모간 통제유형 일치여부가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숙경 (2004).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정현희 (1997). 유아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 Hoffman, M. L. and Saltzstein, H. 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6.
- Hoing, A. S, & Wittmer, D. S. (1994).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9, 5, 4-12.
- Kendall, P.C., & Wilcox, L.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McGinnis, E, & Goldstein, A.. P, (1990). Skill streaming in early childhood, Research Press.

Abstract

Difference between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self control as mother's control type

Lee, Sang-hee* Shin Myoung-Suk**

In this study, mother's control type is important variableness which is related to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self control of children, and then we are going to know which difference is in their each subordinate elements as mother's control type. First, We can recognize difference from positive social behavior of children as mother's control type. By the way, control competence of individual emotion, formation compet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aptability in kindergarten which are subordinate elements appear highly to children in mothers using control type of induction type. Also, children in mothers using control type of power declaration type appear lowly. Second, we are able to know difference from self control of children as mother's control type. By the way, children in mothers of love-withdraw type or induction type appear highly control and lowly urge than children in mothers of control type of power declaration type. Third, control ability of individual emotion which is subordinate element of positive social behavior appears similar interrelation to control and urge which is subordinate element of self control. Formation compet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appears similar interrelation to control. We recognize the more control children is high, the more ability of emotion control and formation compet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is high, the more urge of children is low the more formation compet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is high.

Key Words : mother's control type, positive social behavior, self control

* Sangmyung University

** The Heart Psychological Institute